



01 전문가 칼럼

사이버폭력 예방의 중요성과 학부모의 역할



손병덕 교수
충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사이버 공간은 첨단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가능하게 된 새로운 형태의 의사소통 연결통로로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비대면 사회에서 더욱 많은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를 잘 구분하지 못하는 일부 청소년들이 사이버 공간을 오용하여 또래 청소년들에게 지을 수 없는 고통을 주기도 한다. 이러한 사이버폭력 범죄행동이 심각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사실이다. 또래에게 해를 안기는 의도적·반복적 따돌림, 모욕적인 언어폭행, 차별적 표현, 혹은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이버폭력은 익명적 가해이면서 빠른 파급력을 가지는 특성이 있다. 이는 피해청소년에게 사회적 소외감, 위축, 불안, 염려·걱정, 우울, 자살생각과 같은 심각한 심리적 고통을 가져다주며 학업성적 저하, 등교거부, 가출, 자살행동까지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청소년기는 부모보다 또래 친구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 유대감을 축적하며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숙해가는 중요한 시기이다. 이 시기 사이버폭력을 경험하게 되면 사회적 기술이 저하되어 이후 성인기 사회적 관계형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학교폭력 혹은 사이버폭력 가해자들은 또 다른 사이버폭력의 대상이 되기 쉽다. (사이버폭력은 또래 간 폭력적 행동이 또 다른 폭력으로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예방해야 하는 사회적 문제이다.)

생태체계적 관점에서 청소년의 사이버폭력을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환경요인 중 하나는 가족이다. 부모의 양육태도는 사이버폭력 가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부모의 양육태도가 온정적이지 않고 거부적일 때 청소년의 사이버폭력 가해행동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다. 또한 청소년이 부모로부터 애정과 지지를 통해 부모-자녀 간 친밀성을 경험하지 못하고, 부모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낮거나 권위적, 통제적, 비밀관적인 양육태도를 느낄 때 사이버폭력과 같은 문제행동을 타인에게 유발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질 수 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더욱 위축된 대면 의사소통의 부재는 안타깝게도 부모와의 긍정적 상호작용의 기회마저 앗아가는 부정적 환경으로 작용한다. 이 시기 청소년들은 외로움과 소외감을 쉽게 경험할 수 있으며 부모의 정서적 친밀감과 지지역할은 청소년의 외로움과 소외감을 완화하고 지지감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는 청소년의 건강한 자아 발달과 사회적 유대감, 수용역량 개발에 효과적으로 작용하여 사이버폭력을 예방하는 의미 있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래사회의 주역인 청소년은 사이버폭력의 피해자나 가해자가 절대 되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자녀에게 최초의 사회화를 경험하게 하면서 끝없는 사랑을 보여주는 부모님들이 긍정적인 양육태도로서 청소년들 간 사이버폭력의 피·가해를 예방하는 보호자 원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02 사이버폭력 유형 알아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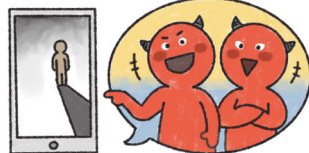
사이버폭력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이버폭력의 대표적 유형에 대해 알아보고 자녀(아이)에게 지도해주세요.

사이버 언어폭력



게시판이나 이메일, 채팅방, 모바일 메신저에서 욕설을 하거나 상대를 비하하고, 거짓된 사실이나 비방하는 글을 올리는 행위

사이버 따돌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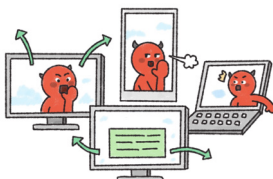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

신상정보 유출



다른 사람의 개인적인 정보를 동의 없이 온라인상에 올리거나 공유하는 행위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상에서 상대를 비하할 목적으로 사실 또는 거짓을 말하여 상대방의 명예를 떨어뜨리거나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공간에서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문자, 사진, 동영상 등을 반복적으로 보내 점차 불안함과 두려움을 주는 행위

사이버 영상유포



성적인 묘사, 성적 비하 또는 성차별적인 발언 등을 포함한 내용을 SNS 등 사이버 공간에 올리거나 유포하는 행위



03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처방법 지도하기

사이버상에 노출된 내용은 빠르게 복제·확산되며 피해가 영구적으로 지속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이버폭력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적어 매우 개인적이고 은밀하게 발생하는 특징을 가집니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누구나 쉽게 사이버폭력의 피·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아이)의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자녀(아이)의 온라인 활동에 대해 부모(보호자)의 세심한 관심과 지도가 필요합니다. 자녀(아이)가 사이버폭력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사이버폭력 대처방법을 함께 지도해주세요.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보호자의 역할

자녀(아이)의 온라인 활동에 관심 갖기

- 불분명한 출처의 사이트 혹은 메신저에 접속하지 않도록 지도해 주세요.
- 음란물과 폭력물 등 유해 정보를 감지·차단하는 소프트웨어(어플)를 설치해 주세요.
예) 스마트 안심드림, 사이버 안심존 등
- 핸드폰 소액결제 요금을 정기적으로 확인해 주세요.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에 대해 지도하기

- 자녀(아이)에게 온라인상에서 자신, 타인에 대한 내용을 공유(SNS 게시, 개인정보가 포함된 닉네임 사용, 불분명한 대상에게 전달 등) 하지 않도록 지도해 주시고, 유출의 위험성에 대해 알려주세요.
- 부모(보호자)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온라인 ID 및 비밀번호 등)를 자녀(아이)가 알게 하거나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해 주세요.

온라인상에서의 의사소통 방법 지도하기

- 자녀(아이)가 온라인상에서 악플 달기, 은어나 비속어 사용을 하지 않고 네티켓을 지키도록 지도해 주세요.
- 평소 가족 대화·채팅방 내에서 부모(보호자)가 먼저 바른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모범을 보여주세요.

언제든 도와줄 보호자가 있음을 알려주기

- 자녀(아이)에게 언제든 도와줄 보호자(부모, 교사 등)가 있음을 알려주세요.
- 사이버폭력 발생 시에 자신이 직접 해결하려 하지 말고 반드시 보호자(부모, 교사 등)에게 알리도록 지도해 주세요.

사이버폭력 대처방법 지도하기

온라인상에서 욕설이나 협박성 메시지(영상)가 오면 ‘싫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하도록 지도하기

가해학생에게 온·오프라인상에서 보복하지 않도록 하고 즉시 연락을 차단하도록 지도하기

욕설이나 협박성 메시지(영상) 등을 모두 저장하여 증거를 확보하도록 지도하기

보호자(부모, 교사 등)에게 알려 사이버폭력 관련기관에 도움을 요청하고 117에 신고할 수 있도록 지도하기

04 사이버폭력 발생 시 관련 도움기관



안전Dream
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학교폭력 및 사이버폭력 신고·상담)

국번없이 117
상담문자 #0117



1388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국번없이 1388
상담문자 #1388



World Best!
경상남도
사이버수사국
CYBER BUREAU

(사이버범죄 신고·상담)

<https://ecrm.cyber.go.kr/>



(사이버폭력예방·디지털 역량교육)

<https://cyberethic.edunet.net>



푸른나무재단
The Blue Tree Foundation

1588-9128



www.wee.go.kr
연락처는 지역별로 상이

